

칼럼

장기채 주필



행복한 노후를 즐길 자격

20대는 청년, 60대는 노인이라는 말이 이제 옛 말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 연령 분포를 보면 지금은 40대를 청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 환갑잔치를 하면 요새는 아이들도 잔치를 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농촌에서는 이미 60대가 청년회장인지도 오래다.

돌아켜보면 우리의 부모세대는 지난 속에서 부모를 봉양했고 아이들을 서너 이상 낳아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50년 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배가 늘어도 부모를 모시는 것이 커녕 비싼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부모도 모시지 못하겠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면 5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일까. 지금 한국은 '중위연령 40세 시대'를 맞이했다. 통계청은 "중위연령 2035년에는 50.8세"라고 전망했다. 중위연령은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울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며, 고령화 지표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중위연령 40세는 '늙어가는 한국'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세상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한 국가의 출산력을 가리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수년째 1.2명을 밑돌아 세계 최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을 일컫는 대체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사회적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나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저축·투자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연금은 물론 노인 빈곤과 질병, 소외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 추

가 부담을 주는 현상도 해결 과제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빠른 진입속도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단의 출산장려책과 여성 고용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아이 낳고도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다. 노인 스스로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노인들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정책이다. 고령화는 인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다. 고령화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없다.

우리가 고령화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은 아일랜드에 이어 꼴찌에

서 두 번째로 낮았다. 돌아켜 보면 불과 30년 전 한국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구 억제였다. 오죽했으면 '물만 남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1자녀 가정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 반면 3자녀 이상이면 주민세가 증과됐고 의료보험지원도 끊었다.

이제 출산을 제고하는 세계 각국이 가장 힘주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은 저출산 문제만 담당하는 장관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 정책 포기할 선언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속속 출산을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대책은 내용 못지않게 시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정책을 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노인들은 한국사 회발전을 이끈 주역들이다. 행복한 노후를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

노인들의 권리와 긍지를 되살리는 것은 땅에 떨어진 가족과 사회 윤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장수가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개인도 나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사회인구시스템부터 새로 짜야 한다.

社說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바람직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나 중대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과거 2년간 치료한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또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치료 이력이 있는 이른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키로 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과거 5년간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을 앓았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없었다. 중대 질병이 아니어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단순히 투약만 하는 경우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다.

금융위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가입 시 질병을 심사하는 기간을 과거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도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

경화증,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등 10개에서 암 1개로 축소한다. 암은 5년간 관찰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과거 2년간 치료한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또 꼽았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이 5년 전인 2013년 협심증을 앓아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한다. 그러나 4월에 출시될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2년 병력만 심사하기 때문에 2013년 협심증으로 수술했다면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5년 이내인 2013년 암을 앓았던 사람이려면 가입이 거절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시행이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 경증 만성질환자의 보장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孤	외로울	고	孤陋寡聞
陋	더러울	루	
寡	적을	과	▷ 뜻 : 하등의 식견도 재능도 없음.
聞	들을	문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요즘처럼 연일 캄비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난방 기구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화재 시 몇 가지 행동방 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민약에 화재로 인해 실내에 고립 되었다면, 첫째,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붙여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둘째,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

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하며 비탈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셋째, 엘리베이터는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 시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리하게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화재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던 집부를 태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해를 끼친다. 화재빈도가 높은 요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박지현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부탄가스 사용시 안전수칙

우리 주변에는 매일 접하게 되는 편리한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의 위험성과 유의사항을 함께 알고자 한다.

휴대용 부탄가스를 비롯한 헤어스프레이와 방향제 등 압축가스로 충전돼 있는 1회용 용기는 재질이 약해서 캔 외부에 사용시 주의사항과 보관 및 폐기시 주의사항을 함께 자세히 표기해 두고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를 숙지하려고 하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68건의 가스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용기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건에 달

하고 있을 만큼 사용자의 안전수칙 숙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부탄 캔은 섭씨 40도 미만 장소에 보관하고 열기가 있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하며, 완전히 사용한 후에도 반드시 화기가 없는 외부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시에는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알루미늄 호일의 사용을 피하고 자동차, 텐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편리한 제품일수록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희창 / 화순소방서 화순안전센터

등록번호: 광주가 0001 (일반)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